

(가)서울호서 로타리클럽 창립 발기인 모임



호서 학원 재경 동문회를 주축으로 신생 로타리 클럽의 결성,
50명 창립 회원 목표! 5월 16일(수) 창립식 개최 예정



3월 6일 개최된 (가)서울호서로타리클럽의 발기인 총회

(가)서울호서로타리클럽 창립 발기인 모임이 3월 6일 서울클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이동건 전RI회장과 이순동 총재, 박호균 전총재를 비롯하여 스폰서클럽인 서울무악RC 강철구 전회장과, 총재특별대표인 신문영 재정위원장, 이재찬 지구확대위원장, 정휘재 회원증강위원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신생클럽 창립 멤버인 강일구 호서대 총장과 이상직 목사, 최대근 회장, 신문기 교수, 최경석 교수, 김재천 사장 등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생클럽 창립을 주도하는 창립멤버 호서대 강일구 총장은 서울무악RC 강철구 전회장(現지구 한/필리핀 친선위원장)의 친형님으로서 ‘패밀리 투게더’로 새롭게 클럽을 창립하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서울호서 로타리클럽 창립 멤버들은 호서학원(호서대학, 호서전문대학, 대성고등학교, 호서 벤처대학원 대학교) 재경 동문회를 주축으로 하며, 이날 발기인 모임에서 강일구 호서대 총장이 초대회장을 맡고, 최대근 회장이 초대 총무를 맡기로 하였으며 5월 16일(수)에 창립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강석진)이 창립을 스폰서하고, 신문영 지구 재정위원장이 총재특별대표를 맡아 창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서울호서 로타리클럽은 이날 발기인 모임을 통해 창립회원을 최대 50명 목표로 하고, 의욕적인 회원 모집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회기에 우리 지구는 지난해 11월 서울무악-올타리 위성클럽(15명), 한양-연세 위성클럽(34명)이 창립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서울늘푸른-위성클럽(9명)과 3월 서울소셜 비즈메이커 위성클럽(10명)과 서울리워드 로타리클럽(20명)이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울호서 로타리클럽이 창립하며 우리 지구의 금회기 ‘패밀리 투게더 회원증강과 지구확대 전략’의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리워드 로타리클럽 창립

회원 전원이 주주인 리워드센터 (쇼핑몰&자선경매 오픈몰)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동남아 6개국 청년들에게 상품아이디어 제출 기회 및 장학금 지원
3월 23일 창립식 개최, 스폰서클럽 새한양RC

글. 서울리워드RC 회장 이재욱
지구 홍보위원장

서울리워드로타리클럽이 새한양로타리클럽(회장 송원규)의 스폰서로, 2016 서울 국제대회 HOC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이재욱 지구홍보위원장을 초대회장으로 하여 창립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3일(금) 리임ICS사무국에서 개최된 창립식에는 이순동 총재와 최진욱 사무총장, 정휘재 회원증강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이재욱 초대회장을 비롯한 창립 회원들과 새한양RC 황준호 총무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서울리워드 로타리클럽은 교수 5명, 의사 5명, 공무원 5명, 기업인 5명 등 경제, 경영, 금융, 생산, 세무&회계, 농업, 의학 등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전문 경험과 지식을 지닌 40~60대 직업인으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본인들이 주주인 리워드센터 (쇼핑몰&자선경매 오픈몰 www.2016rewardcenter.com)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 100%를 중국조선족을 비롯한 몽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6개국 청년들(19~30세)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아이디어를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회원들이 심사해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USD 3,000~5,000 장학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국가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지원과 봉사활동을 현지 자매클럽과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아가 선정된 상품의 시장화와 생산, 마케팅, Funding까지 직업멘토 역할을 지속하여 로타리의 직업봉사 및 국제봉사 실천에 활동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www.2016rewardcenter.com

패밀리 투게더, 신 로타리 시대로 가는 변화

지구대회 본회의, 금회기 창립한 6개 신생클럽 회원과 스폰서클럽 회원들이 함께 등단하여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로타리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가운데 우리 3650지구는 Family Together 전략을 중심으로 회원증강의 새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회원의 정제 및 감소 추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구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이순동 총재의 Family Together 슬로건에 맞추어 '나홀로 로타리안에서 '가족연합' 방식으로 회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혈연적 의미의 가족으로서 배우자가 입회해 부부회원이 된 다거나, 자녀가 로타리 멤버십을 이어 로타리클럽이나 위성클럽에 가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광의의 가족 개념으로 동창이나 선후배, 직장이나 동호회, 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신입회원을 영입하고 있다. 특히 지난 회기에는 로타랙트클럽 출신 회원들이 위성클럽에 재가입하여 차세대 로타리 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Family Together의 소중한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부부가 함께하는 로타리, 부인회 중심 위성클럽

회원 배가운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근래의 사례를 보면 그 중심에 여성회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 배우자에게 로타리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장수시대에 걸맞는 선택이다.

지난해 10월 24일 창립한 서울무악-올타리위성클럽(회장 성태영)이 그 첫 번째 사례다. 22년 역사를 지닌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강석진)의 회원 배우자들이 부인회 기반을 바탕으로 15명의 위성클럽을 만들었다.

주회 출석이나 연회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좀더 유연한 형태의 로타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봉사나 지구 프로그램 등에는 모클럽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늘푸른RC(회장 한백현)에서 9명의 로타리안 배우자들로 구성된 늘푸른-올타리 위성클럽을 창립했다.

로타랙트, 장학생 출신 주축으로 위성클럽 창립

로타랙트클럽은 신세대와 로타리클럽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로타랙트 회원(18~30세)들이 곧바로 로타리 회원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모클럽이 후원하는 위성클럽으로 조직해 청년세대를 로타리와 맺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29개 로타랙트클럽이 조직돼 있고,

1969년 부산대에서 첫 로타랙트가 탄생한 이래 반세기 동안 많은 회원들이 배출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유대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었다.

로타랙트 출신 청년들을 위성클럽으로 재결집하여 차세대 로타리안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블루오션이라고 하겠다.

지난 2015년 10월, 우리 3650지구 로타랙트 출신들로 구성된 서울남만로타리클럽(회장 강민성)이 처음 창립되었다. 순수 로타랙터들로만 로타리클럽을 창립한 것은 한국로타리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또한 일본로타리 요네아마재단 장학생 출신들로 위성클럽을 조직하려는 준비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국내 232개 로타랙트클럽과 로타리 장학생 출신들이 로타리 회원으로 연계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12일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최경순)이 후원한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회장 김동찬)이 연세로타랙트 출신 회원 34명으로 창립됐다.

한양로타리 창립 62주년 기념주회에 연세 회원들을 초대해 클럽 역사와 봉사활동을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위성클럽으로 발전하게 됐다.

한양-연세 위성클럽은 로타랙트 회원들이 바로 로타리클럽 회원이 되는 사례로서,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로타리 사상 첫 번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2016년 RI 규정심의회에서 '로타랙트 회원도 로타리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이중회적 가능' 규정이 생김으로써 로타랙트나 로타랙트 출신 청년들이 위성클럽 로타리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전형 보여준 것이다.

한편, 서울삼청로타리클럽(회장 이우식)은 창립 23년만에



지난 3월 7일 개최된 서울-소셜비즈메이커 위성클럽 창립식

로타랙트클럽을 스폰서하여, 지난 10월 서울 로타랙트클럽 창립을 후원한 바 있는데, 이 클럽은 기존의 대학교 재학생 위주의 로타랙트를 탈피하여 대학 졸업생과 회사원, 외국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조소회원, 부부회원까지... 로타리 가문을 만들자

우리 지구는 한국 중주지구인 관계로 조부모에서 손주 세대까지 2~3대를 이어오는 로타리 가문이 있다. 여기에 부자, 모녀 회원 등 자녀회원은 물론 지난 9월 월례회의에서는 새서울로타리 김유광 전회장의 두 자녀와 사위가 동시 입회한 적도 있다.

서울삼청로타리클럽은 최인훈 회장과 이우식 직전회장의 영부인 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관장과 김진옥 올라이트라이프(주) 대표이사가 동시에 입회해, 조상호 전회장의 영부인 유승희 교수까지 세 쌍의 부부회원이 함께 활동하게 됐다.

아울러 오는 5월에는 (가)서울호서 로타리클럽이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창립할 예정이다. 서울호서 로타리클럽 창립 멤버들은 호서 학원(호서대학, 호서전문대학, 대성고등학교, 학교법인 호서 벤처대학원 대학교) 재경 동문회를 주축으로 하며, 신생클럽 창립을 주도하는 창립멤버 호서대 강일구 총장은 서울무악RC 강철구 전회장(現지구 한/필리핀 친선위원장)의 친형님으로서 ‘패밀리 투게더’로 새롭게 클럽을 창립하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로타리클럽(회장 한태숙)이 지난 3월 7일 서울-소셜비즈메이커 위성클럽을 창립시킨바 있으며, 지난 3월 23일(금)에 2016 서울 국제대회 HOC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이재욱 지구홍보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리워드 로타리클럽이 창립하였다.

패밀리 투게더, 신 로타리 시대로 가는 변화 지속적인 관심 필요

금회기에 우리 지구는 지난해 11월 서울무악-울타리 위성클럽(15명), 한양-연세 위성클럽(34명)이 창립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서울늘푸른-위성클럽(9명)과 3월 서울소셜 비즈메이커 위성클럽(10명)이 창립한데 이어 이번 3월과 5월에 서울호서 로타리클럽(약 50명)과 서울리워드 로타리 클럽(회원 20명) 창립하며 우리 지구의 금회기 패밀리 투게더 회원증강과 지구확대 전략의 정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Family Together를 통한 회원증강은 새로운 로타리 시대의 필연적 방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3650지구 모든 로타리안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상청로타리클럽 가족회원 입회식

지난 11월, 한양연세 위성클럽 창립식



서울 영리더스 로타리 위성클럽 주회



새서울RC 김유광 전회장의 가족회원 입회식



상기 내용은 제56년차 지구대회에서 정회재 회원증강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